



임무영 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광야의 양면성”

흔히 사람들이 인생을 표현할 때 ‘광야’라는 은유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광야같은 인생’ 어떻습니까? 웬지 이 표현을 묵상하면 녹록치 않은 인생의 한 단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쁨의 탄성을 자아낸다고 보다는 죽지 못해 살아가야하는 일방적인 삶의 수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라고 한다면 공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섬기는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가이드를 통해 함께 한 일행 모두가 잠시나마 광야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경험이었으나, 그 기억을 소환하기조차 너무나 먼 시간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의 기억이 사뭇 잊혀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제 자신도 모르게 그 때의 기억과 느낌이 깊이 인식되었기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광야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살기 편한 세상 한 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삶의 기분, 느낌, 감정의 나락등을 광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광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광야는 이질적인 동시에 친숙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밀어내는 동시에 끌어당기는 곳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마도 광야의 양면성을 대표하는 성경의 한 본문을 찾아내려면 저는 단연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쫓겨 광야로 내던져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광야는 철저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재앙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은 어미로서 광야에 내동강이쳐진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덩굴 아래 놓습니다. 이유는 이 아이가 자신의 눈 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는 공포를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과 아들의 죽음을 예견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두 사람은 광야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황량함이 아닌 광활함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그리고 재앙이 아닌 진정으로 갈망했던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하갈의 고백이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가리켜, 당신은 ‘엘 로이(El roi)’이니이다 하였으니 말하기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뵈었는가, 그분을 보고도 여전히 살아있는가 하였더라”(창 16: 13). 하갈은 광야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철저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받아 광야로 내몰려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하갈이었습니다.

하지만 ‘살피시는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셨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갈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래서 하갈은 참으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장소적 광야, 삶의 광야, 관계와 건강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나를 보거나 듣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양면성입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도 마음놓고 못 봅니다. 건강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바쁘고 힘이 듭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아 허리가 점점 더 휘어집니다. 일자리가 위태롭다는 생각도 사뭇 듭니다. 한 마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엘 로이’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광야 한 복판에 계십니다. 이를 믿고 사는 사람을 어느 누가, 어떤 환경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양면성을 기억하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한 회복과 소망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브릿지교회



세상을  
그리스도  
께로  
연결하는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Mike Brick, Tara Der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el: 260-602-9061

www.chicagobridgechurch.org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이세형 형제

헌금 특송.....AINOS MISSION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룻기 2장 1-4절  
(Ruth 2:1-4)

설교.....임무영 목사

<룻기설교 시리즈 4>

“우연’을 ‘마침내’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God who changes “by chance” to “finally”)

성찬.....다같이  
(분찬위원: 신성호, 손유기, 이재태, 이희철)

\* 설교후 찬양.....다같이  
“오 신실 하신 주(하나님 한 번도 나를)”

\* 축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영: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공지사항

- a. 7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b. 브릿지 교회 요람 및 7월달 생명의 삶 Pick up (문의: 안내팀 및 위경미)
- c. 선교사 후원에 따른 개인별 선교 헌금 봉투를 로비에서 pick up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7-8월 동안은 노타이 (No-Tie)로 지냅니다.
- e. 2022년 하반기 성경통독표 Pick up
- f.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오픈: www.chicagobridgechurch.org
- g.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예배및 훈련

- a. 토요새벽예배 : 7/9(토) 6am, 현장및 Zoom
- b. 1부예배: 10:30am / 소예배실

4. 2022 시카고 브릿지 교회 VBS 등록안내

- a. 기간: 7/18(월)-21(목) 9am-2pm
- b. 장소: 시카고 브릿지 교회 본당 (VBS와 관련된 내용은 QR코드 사용)



5.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김성광 / 다음주: 윤재영
- b. 다음 주 기도: 조정자
- c. 7월 안내및 헌금위원: 이혜린, 송재우(헌금) / 김정미, 박재홍(안내)

6. 감사

- a. 선교사 후원 약정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b.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c. 오늘 귀한 찬양으로 은혜 나눠주신 AINOS MISSION에 감사드립니다.

7. 기도제목

- a. 2022 VBS를 위해서 (자녀들 믿음, 안전, 도움의 손길)
- b.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c.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 d.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샤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8. 지난 주 출석: 어른(93), 다음세대(23)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소예배실	
주일예배 2부	12:00 pm	본 당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동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